

광주·전남 안철수 지지모임 본격 행보

시민포럼 100여명 '비전워크숍' 조직 확대·향후 활동 방향 모색 광주 진심포럼도 선거 지원 논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정치체계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안철수 지지모임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특히 일부 단체는 민주통합당과 각을 세우며 국내 정치상황에 맞는 역할 고민과 향후 활동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조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활동해 왔던 광주전남시민포럼은 22~23일 1박2일 일정으로 담양군 전남도 친환경농업교육원에서 '2013 비전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에는 공동대표와 운영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정치지형 분석과 함께 향후 활동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의 정치와 호남정치 복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안철수 전 교수의 대선 캠프 역할을 했던 전 진심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금태섭 변호사를 초청해 '새정치란 무엇이며 주체세력의 형성은 어떻게 이를 것인가', '호남정치 복원의 핵심

과제와 호남의 선택' 등에 대해 본인 토론도 갖는다.

시민포럼 관계자는 "안 전 교수의 4·24보궐선거 노원병 출마를 계기로 국내 정치상황에 맞는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비전워크숍을 개최한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새정치와 호남정치력 복원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포럼은 이에 앞서 이상갑 변호사, 조정관 변호사,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위원 등 19명으로 공동대표단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 정비했다.

시민포럼은 또 21일 안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를 '일방적 행보'라고 지적했던 이용섭 민주당 당 대표 후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시민포럼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호남민심은 아직 민주당을 응서할 준비가 되었는지 않고, 특히 민심이 바라는 정



4·24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 병 지역에 출마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와 부인 김미경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노원구 시립수락양로원을 방문해 요양 중인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혁신도 이뤄내질 못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이용섭 의원은 대선패배 이후 당지사퇴 75일만에 '실패용서'라는 편리한 방법으로 당권 경쟁에 뛰어들어 다시 기득권 쟁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실체도 없는 안철수 신

당이 호남에서조차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나가자 정치적 도의마저 버리고 안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작 탈 기득권을 선언한 이 의원은 당 대표 출마에 앞서 지역민에게 어떠한 동의절차를 구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안 전 교수의 또다른 지지모임인 광주 진심포럼(상임대표 범희승)도 최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 등반대회를 갖고 향후 포럼 운영방안과 안 전 교수 선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안 측 "우리도 범야권"

야권연대 가능성 열어 놔

4·24 노원병 재보선에 출마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측이 그들의 정체성을 범야권으로 규정하면서 야권연대 가능성을 열어 놓아 주목된다.

안 전 교수 측 윤대곤 공보팀장은 21일 SBS 라디오에 출연, "우리도 크게 보면 범야권"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견제할 때는 견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이 생각하는 중요한 방안들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결은 조금 다르다"며 "새 정치의 씨앗을 노원에서부터 뿌리겠다"고 밝혔다.

정기남 전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도 이바디에 출연해 야권연대 전망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든 문이 열려 있다"며 "야권과의 관계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안 전 교수 측의 이 같은 발언은 지

역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 등 독자적 정치세력화 논의가 부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또한, 앞으로 안 전 교수의 정치 행보에서 야권 지지자들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뜻과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노원 병 무공천'의 명분을 제공 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안 전 교수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김성한 노원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잇달아 만나며 민주당과 간접적으로 스킨십을 해왔다.

소속 송호창 의원, 정기남 전 부실장 등 민주당 출신의 안 전 교수 측 인사들도 민주당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기초長·議員 정당공천 폐지, 법 개정 논의 나서라"

지방분권 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공동대표 류한호 광주대 교수)는 21일 "여야는 하루빨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는 정치발전과 책임정치를 강화하기보다는 막대한 지역주의 고착화를 불러왔다"며 "심지어 공천권을 전 지역구 국회의원의 손에 거둬서 뇌물을 건네고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는 등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毒)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측, 주민의사 왜곡, 공천비리 잡음 등 공천제 역기능과 폐해로 인해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대두하고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범국민적 여망에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는 21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여야에 촉구했다. /최현일기자 choi@kwangju.co.kr

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입장표명을 미루거나 공천폐지 철회방향을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여야는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적극적 무용론까지 대두하고 있다"며 "정체쇄신 의지와 함께 대선공약을 실천

한다는 의미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조속히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는 또 올해 지방분권확대운동과 함께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있는 기초의회·기초단체장 공천폐지 운동에 주력하기 위해 공천제 폐지 법제화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법무차관 사퇴 이어 김병관 내정자 사퇴 압력 박 대통령 인사 검증 논란 새정부 국정운영 발목잡나

새 정부 고위직 인선과 관련한 후폭풍이 국정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처리 합의를 계기로 국정운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다음날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한데 이어 21일 김학의 법무차관을 물러났다. 여기에 민주통합당은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는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도 당장 사퇴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작된 대통령 업무보고는 다소어려운 관심 밖으로 밀려난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노인빈곤의 타파와 기초연금제 도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의 100% 적용 등 대선공약을 강조하면서 '복지' 의욕을 과시했지만 이날 세인들의 관심은 온통 '김학의'로 쏠리며 빛이 바랬다.

청와대도 사정당국의 최고위급인신임 법무차관이 '고위층 별장 성전대 스킨들'에 휘말린 것 자체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름이 나온 본인이 대처를 해야 할 것", "청와대에서 그 사람을 옹호해줄 이유도, 비호해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정리된 것도 이런 기류의 일단으로 풀이됐다.

특히 민정라인이 일찍이 관련 첩보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부담이다. 계속되는 박 대통령의 '인선 검증 논란'에 다시 한번 기류를 붓는 격이 되고 있어서다.

청와대의 고민은 인선과 관련한 파문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대목에 있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문제가 그것이다. 야당이 엄청난 공세를 그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도 사퇴론이 확산, 김 내정자는 물론 청와대조차 궁지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일부에선 박 대통령에게 최근 사태에 대한 여러 경로의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여론 추이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與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 내부 논란 확산 당 공심위 결정에 일부 최고위원 제동

4·24 재보선에서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무(無)공천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 내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을 확정하자 일부 최고위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는 당의 공약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돼야 한다"며 "그러나 여야가 함께 약속하던 지 법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신청 후보자가 있는데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무공천을 결정할 권한이 공심위에는 없다"면서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최고위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무공천 공약

을 4·24 재보선에 당장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상당하다"면서 "민주통합당은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만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공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공심위원들의 자체적인 생각만으로 무공천을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면서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논의를 거치고 또 최종적인 양해를 얻어 무공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도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자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공약할 때 당 지도부에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얼마 지나지도 않은 지금 그런 (반대입장) 표명을 당원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토지 구함!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시장남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부페(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
•오지동 대지 330㎡ 건물 793㎡ 월수익 380만원 (추가대수익(예상) 매대가 7억 원) 1965년, 용지 1965년

◆상가매매◆
•신용동 협단지구 110㎡ 월수익400만 원 매대가 8억 원 (보증금 5천만 원) 4억 원 이등통신포 임차예정
•신용동 협단지구 66㎡ 호반주출입구 앞 이마트 주출입구위치 대로변 코너건물 핵심상권 매4억 원

분양
•용두동 협단지구 12차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독점형상권) m5544만원 매대가 2억6천만 원
•용두동 협단지구 12차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독점형상권) m당 163만원(7천7백만원) -2구 좌분양가능

상가임대
•신용동협단지구 호반주출입구 앞 132㎡ 3층 보증금3000 / 월140만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예상구역)
•신용동협단지구 호반주출입구 앞 132㎡ 4층 보증금3000/월120만원(대관도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 예상구역)

상가주택매매
•신정동 하남2지구 1층점포2칸, 2층 투스리홀37개 3층복층인실 월수익550만 07'933천만
•월전동 흥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 069억 원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분양·대행·시행·상담)

경매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투자, 권리분석, 비법전수 등등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